

-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안)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형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논산시민과 의회에 시정의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 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위기 때마다 역사의 흐름을 바로서게 하던 성스럽고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정기조에 발맞춰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2017년 한해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 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내실 있게 실천 하였습니다.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논산”을 실현해 왔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있고,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는 점점 증대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윤택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우리시 미래발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우수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시정의 가치를 두어 논산시 복지수준 향상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세행복과를 신설하여 마을경로당을 거점으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건강한” 마을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논산시 고유의 새로운 복지모델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정착시켰으며, 이러한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중국 상해시로의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의 성공적 추진에 이어, 금년도에는 타운홀미팅시 청소년들이 건의한 “일본 오사카지역 연수,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의 확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백제문화권 역사현장을 보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세계관을 품을 수 있도록 『**백제 문화권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9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현명한 집단지성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정책을 시정의 핵심 정책으로 준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성장동력은 국정철학과 중점을 두는 가치·신념과 연결될 때 획기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던 우리시 숙원사업인 『**KTX훈련소역 설치사업과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 우리시에서는 병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재창조하여 지난 11월 논산 선사인랜드를 개장하였습니다.

논산 선사인랜드에서 VR가상체험과 서바이벌체험은 물론 드라마 촬영과 육군훈련소 입영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적 관광자원인 탐정호에 수변데크 둘레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과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을 조성하였고, 더불어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탐정호는 중부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화기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보고이며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번성했던 상업의 중심지, 종교적 성지인 강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

농촌은 우리 모두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고, 경제활동 등 모든 생활의 바탕에 농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소농, 고령농, 영세농, 귀농, 여성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추진 등 다양한 시책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기존 버스 운행체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요 응답형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행을 시작하여, 농촌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교통약자에게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고동락 행복택시” 사업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정책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점 쇠퇴해 가는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민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원칙과 신뢰, 소통과 참여, 창의와 혁신을 기치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시대를 만들고자 기업 유치와 국비확보를 위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세일즈 시정을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의 달성, 나아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선결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9백여 공직자와 함께, 기업은 물론 국회·중앙부처까지 시민의 행복한 삶과 논산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현장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씬 없이 달려 왔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에 그치지 않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논산, 취업하기 좋은 논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11월 『**논산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개소하였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 우리시 고용률은 70.6%로 해를 거듭할 수록 경신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이어 고용

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3년 연속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협조에 힘입어, 2018년도는 지방교부세 2,700억원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47억원, 탐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42억원, 대교화지지구 하수도정비사업 52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6억, 양촌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18억원, 논산시립 도서관 건립 13억원, 강경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 2,522억원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222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예산 확보에 힘입어 2010년 4,000억원이었던 우리시 전체 재정규모는, 2017년 현재 8,000억원으로 성장하여 논산시 지방재정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5기 취임과 동시에 “지방채 전액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채는 양날의 검으로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업유치와 지역발전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왔으며 채무의 지속적인 상환과 긴축재정,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민선5기 출범당시 인수받은 채무 376억원을 비롯하여 민선5·6기 동안 발행한 209억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채무 제로도시**』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경제분야에 있어 2016년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에 이어 2017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7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 수상,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는 영외면회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분야에서는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등 시정

현안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시민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각별한 관심 덕분이며,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저는 논산시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논산의 미래발전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논산시 공직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논산을 만들어 시민의 삶과 밀착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경제·관광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우리시 브랜드가치 상승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정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도 추진할 주요 5대 전략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일즈 시정을 지속하고 공동체 경제를 통해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인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국방혁신도시로 발돋움하고, 기업맞춤형 산업용지 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중앙정부, 기업체 등 어디든 찾아가는 세일즈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상생하는 공동체 경제를 실현하여 청장년층이 힘을 얻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논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로컬푸드시스템 정착과 대전 MBC와 협업하고 있는 『**농산물 광역 직거래센터**』도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하여 우리농산물 유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자원을 긍정적 미래성장 기반으로 엮어낼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으로 육군훈련소·육군항공학교, 인근의 제룡대 등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국방의 중추도시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방·군사자원과 연계한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하여 『**국방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KTX 훈련소역 신설**』은 지역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그리고 훈련병과 면회객 가족을 위한 병영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KTX 훈련소역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매력넘치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에서 문화가 생활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최고 수준의 힐링 콘서트, 시민공원에서의 버스킹 공연, 마을 경로당에서의 연주회까지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으로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 문화극장”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 충청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금강과 백제문화 그리고 인근 공주와 전주까지 연계하는 관광자원 발굴 등 역사적, 지역적 자원을 보존 하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탐정호 종합개발은 수변데크 들레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뿐 아니라 전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완벽하게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계획 승인 예정인 “탐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군 관련 휴양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야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밤에도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탐정호를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동시에 우리시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논산 미래의 중심인 아이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해왔던 초등학생의 국회와 청와대 방문, 고등학생의 가고 싶은 대학탐방, 그리고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까지 이 모든 정책들이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논산시가 하나의 교육공동체가 되어 이루어낸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2018년에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논산에 태어나서 교육과 문화여건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아닌 논산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를 위한 명사특강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속에 배움과 익힘의 즐거움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도서 열람부터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 그리고 평생학습 기능까지 가능한 『**시립도서관**』을 2018년도까지 준공하고, 2019년도부터는 본격 운영하여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동고동락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한글대학 심화과정 등 단계별 프로그램 편성, 의사가 찾아가는 실질적인 건강진단과 그에 맞는 운동과 식단 처방을 연계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한 배움이 있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논산의 미래를 그려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철학이 우리시의 행정에 깊이 스며들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가속하는 등 복지가 필요한 어떠한 곳에도 복지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넷째, 함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9월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진도 5.4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란 의식이 사라졌고 국민 대부분이 안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을 어느 한 분야로 생각하는 시대가 지나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안전을 고려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재난대응 훈련

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는 물론,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 안전
장치인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야간 안전을 위해 가로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편안하고 안전한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교천에 대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쾌적한 공간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공원 중 검색순위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시민공원 또한 휴식·문화·힐링의 공간
으로 계속 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행정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를 써오신 의원님 여러분!

문재인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플뿌리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강화, 지역특화 마을 조성, 스마트 주민센터 및 읍면동 공간혁신을 통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2018년에는 마을단위까지 『동고동락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타운홀 미팅을 개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공사감독관제도 등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SNS등 뉴미디어에 대한 시민 교육은 물론 각종 행정 정보의 적극적인 온라인 공개를 실천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논산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6,866억원으로 일반회계 6,008억원, 특별회계 858억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시정의 철학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추구하고시는 사업들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18년 편성한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민여러분!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산시는 우량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왔으며, 문화관광과 교육복지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중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참여, 소통, 인권, 민주적 가치가 확립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은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논산시의 큰 발전과 새로운 도약은 13만 시민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4.

논산시장 황 명 선



논 산 시